



불량률 ZERO에 도전하는 匠人정신

음료 자동충전기 · 스파우트 자동부착기 국산화



◀ 김종기 (주)나민 대표이사

평범한 것을 독특하게 사용하고 생활의 편리함으로 만들어 주는 기술을 가진 개인과 업체가 각광을 받는 벤처기업의 열풍이 불고 있으며 앞으로도 벤처기업의 무한한 가능성은 우리 산업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신도시 개발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경기도 화성시. 이곳에 건설현장보다도 더욱 바쁘게 움직이는 벤처기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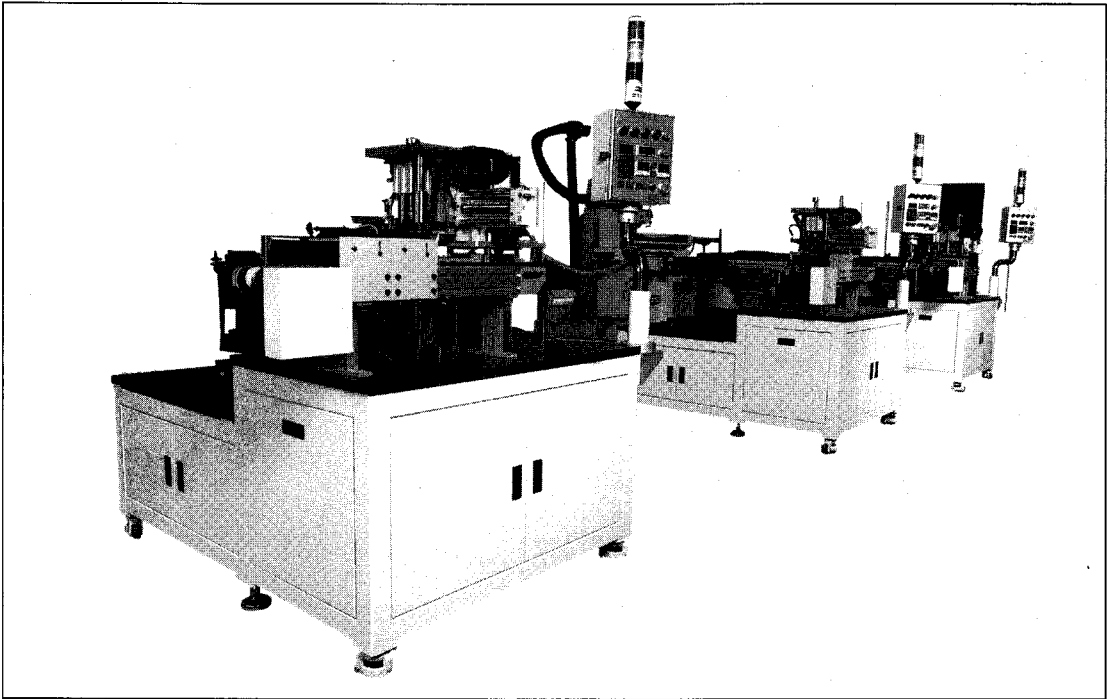
국내·외에 특허 등 20여건이 넘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출원중인 것만도 24건에 이르는 기업 주식회사 나민(대표이사 김종기)이 포장산업을 이끌어 갈 벤처업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995년 하반기 마비로 삶 자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김종기 사장이 의계에서도 희귀하게 받아들여지는 자연 치유로 병미를 이기면서 다짐한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이루고 가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 있었다.

그 이후 회사를 설립하고 이름도 나라와 민족이라는 의미로 '나민'이라 짓고 국내 업체들이 생산하거나 개발한 제품은 피해 수입하는 제품만을 국산화한다는 의지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학교 때부터 스스로 무언가를 일구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고학생활을 자처했고 졸업후에도 부모님이 하시던 건설업에도 종사해 보았으나 일화연구소에 음료용기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경험과 포장분야에 대한 매력으로 포장인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

고품질의 저가 제품으로 국내 산업에 이바지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대국적인 생각으로 개발에만 몰두하던 김 사장도 초창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같이 의기투합했던 사람들이 생활고를 못 이겨 떠나갈 때 가슴이 아파 좌절도 했지만 함께 했던 사람들의 고생에 보답하는 길은 해내야 된다는 자신의 채찍에 더욱



▲ 휴대용 파우치 실링기 Portable Pouch Sealing M/C

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로 1999년 스트로우 부착형 음료용기 특허등록,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산업재산권 기술성평가 우수,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특허청장상 수상, 산업자원부 신기술사업자 선정으로 빛을 받기 시작하여 기초를 다지게 된다.

나민은 현재 스트로우 탭 음료용기인 투명캔, 음료용 마개, 파우치 스파우트, 레저용 파우치 음료용기, KONA팩 시리즈, 휴대용 파우치 실링기, KONA팩 자동실링기, 자동 충전 및 포장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그 기술력의 핵심제품들의 특징을 살펴 보면 기존 용기의 주출구인 탭을 스트로우 방식으로

제작한 스트로우 탭 음료용기인 투명캔(BC-9060, BC-1060)은 스트로우로서 음용구의 개방 및 스트로우 역할로 용기가 뒤집어져도 내용물의 유출이 없는 차세대 캔용기로 음용시 입안의 내용물이 용기 안으로 역류하는 것을 차단하고 캡 내부의 봉인장치인 실을 제거하지 않고도 음용이 가능한 풀 푸쉬 캡을 채용했다.

음료용 마개는 용기를 거꾸로 세워도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는 구조로 용기 내부의 봉인인 실을 제거하지 않고 음용이 가능하고, 음용시 입속의 내용물이 용기안으로 역류하지 않는 구조이다.

파우치 스파우트는 레토르트 살균가능 스파우트로 스파우트 내부에 스트로우 역할 및 2중 잠



▲ 용기를 거꾸로 뒤집어도 쏟아지지 않는 음료용 마개

금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잔여 내용물의 보관이 수월하고 수차례 나누어 음용이 가능하다.

레저용 파우치 음료용기인 워터팩은 접거나 말아서 휴대가 가능하여 부피의 최소화로 활동성이 편리하다. 또한 용기의 전·후면에 원하는 디자인 및 PR문구 인쇄가 가능하여 저비용으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업 판촉용 기획상품으로 적합하다.

국내·외 파우치 음료용기 시장의 석권을 목표로 개발된 (주)나민의 야심작 KONA 팩시리즈 (KP 150AL~500AL, KP 150치~500CL)는 용기의 대형화에 따른 부피의 감량화 문제를 극복한 차세대 그린 팩으로 기존 충전기에 100% 호환이 가능하며,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이 탁월한 제품이다.

KONA팩 시리즈의 출시와 더불어 기존 일본, 독일 등에서 수입하여 사용한 파우치에 스파우트를 부착하는 KPA-7002는 국내·외 특허기술이 접목된 것으로 1회 동작으로 제품이 완성되며 기존 스파우트 파우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핀홀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또한 콤팩트한 사이즈(1,050mm(L)×1,310mm(W)×1,700mm(H))로 좁은 공간에



▲ 2중 스트로우 잠금 기능이 내장된 2중 파우치 스트로우

서도 생산이 가능하고 용량별 변경 생산이 가능하다.

자동실링기는 무인 자동화 생산이 가능하고 수입제품 대비 가격이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 기계와 라인업이 가능한 자동 충전 및 포장 기계는 위생성과 안정성이 우수하며 유지보수 및 청소가 간편한 특징을 갖고 있다.

스파우트로 내용물이 충전되는 KPF-8000TWIN은 내구성이 강하도록 설계되었고 간편한 조작과 정비가 수월한 공압장비로 분당 생산량이 500ml기준으로 60EA~120EA 생산, 파우치 팩의 윈스톱 생산이 가능한 모든 설비의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한층 더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 제품들 모두 나민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을 국산화한 것으로 품질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충분한 제품들이다.

“사업분야의 특성상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초기 고정비용의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

는 김 사장은 “포기하면 장인이 아니다”라며 스스로를 “연구하는 장인, 개발하는 장인으로 불리우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화, 국제화 시대의 21세기를 선도하고자 하는 (주)나민은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에 의한 지적 혁신을 통해 최고의 품질과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고객만족과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믿음직한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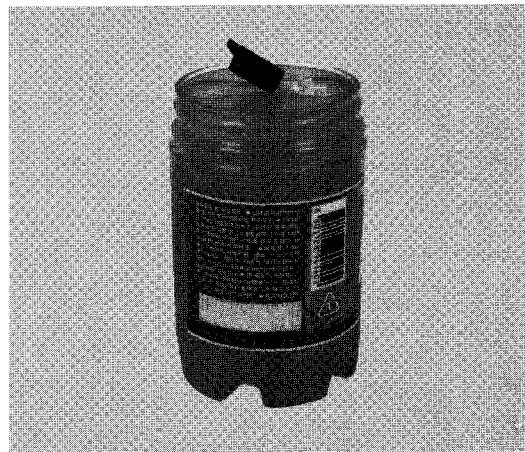
김 사장은 지금껏 묵묵하게 열심히 노력해 준 임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도 잊지 않았다.

김 사장은 “국내 여러 업체에서 참신하고 좋은 제품들을 상당 수 개발하고 있음으로 관련 업계에서도 국내 개발 제품의 적용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나아가 세계적인 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기술적인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여 신제품을 개발 완료했을 때 마치 새로운 생명의



▲ 차세대 투명캔





▲나민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탄생과도 같은 뿌듯함을 느끼고 또 한번 해냈다는 기쁨을 맛보았을 때가 가장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나민은 이제 회사 설립초기 계획한 올해 2/4분기내 기본 설비를 끝낼 계획이며 이에 따른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그 첫 번째로 나민의 야심작인 KONA PACK 시리즈를 올해 4/4분기내에 해외로 수출하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중이고 국내에도 음료회사와 공급물량 및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새롭게 개발한 파우치용기 자동 충전기인 KPF-8000TWIN과 스파우트를 자동으로 부착하는 KPA 7000E를 패키지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스트로우 텀 음료용기인 투명캔을 양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전세계 캔용기 시장을 석권하고자 하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다.

어떻게 하면이란 질문과 안되는 일은 없다라는 신념으로 시작한 일은 반드시 해내고야 만다는 김종기 사장과 임직원들은 세계화, 국제화라는 21세기를 선도하고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업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제품으로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에 따른 신제품 개발로 지적 혁신을 이루고 “장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포기하면 이미 장인이 아니다”라는 경영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불량률 ZERO에 도전하고 있다. ko

〈鎭〉